

“다시 오면 한바탕 놀자” 일연 스님 목소리 들리는 듯

삼국유사의 도량 인각사

어떤 스님이 국존(國尊, 일연 스님)의 앞에 나아가 물기를, “석존께서는 학림(鶴林, 쿠시나가라 사리쌍수)에서 열반에 드셨고, 화상은 인령(麟嶺, 군위 인각사)에서 입적하시니 그 상거(相去,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나이다.”

스님께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상거가 얼마나?”

다시 말씀 드리기를, “그렇다면 지금과 예가 마땅히 변천함이 없어 분명하게 목전에 있나이다.”

스님께서 또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분명히 목전에 있다.”

다시 말씀 드리기를, “뿔을 세 개 가진 기린이 바다에 들어가고 공중에 걸린 조각달이 물속에서 나온다.”

스님께서 이르되, “훗날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과 더불어 한바탕 놀자.”

또 어떤 스님이 물기를, “화상께서 100년 후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일상생활, 이것뿐이다.”

“군왕과 더불어 하나의 무봉탑(無縫塔, 인간의 경지를 뛰어 넘은 솜씨로 만든 탑)을 조성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뱀을 묻고자 함이옵니다.”

“이 일은 모두 아는 일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

또 어떤 스님이 물기를, “스님은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과 같으며, 몸을 보되 또한 몸을 없는 것과 같으니, 더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 계



파손되어 조각만 남은 보각국존정 조탑비

시면서 대법륜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거나, 저 세상에 있거나, 가는 곳마다 불사(佛事)를 하고 있느니라.”

불후의 명저(名著)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이 군위 인각사에서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는 문답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다정하면서도 기상이 넘치는 범거랑을 하면서 한 생애를 마감하는 일연 스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걸리지 않는 도인의 풍모가 어떤 것인지, 머릿속이 시원해 질 것입니다.

일연 스님은 범거랑을 마치고 대중을 향해 “날마다 공부하는 경지를 보고하라. 가려운 통양지(痛痒之-有念 즉 인식의 세계)와 가렵지 않은 불통양지(不痛痒之-無念 즉 인식을 초월함)가 모호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고는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이것이 곧 통양지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리치고 “이것은 불통양지라” 했고, 다시 세 번째 주장자를 내리치고는 “이것은 통지냐? 불통지냐? 시험 삼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법상을 내려와 방장실로 돌아가서 조용히 손으로 금강인을 맺고 입적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듯 연출되는 일연 스님의 입적 상황은 ‘보각국존정조탑비(普覺國尊靜照塔碑, 보물 제428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1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일연 스님이 살았던 시기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절이었습니다. 정중부의 난(1170) 이후 무신정권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을 때 태어났고 세 차례에 걸친 몽고의 침입으로 전국도가 황폐화 되는 것을 모두 목도하며 중생고를 혹독하게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수행과 강학 그리고 저술에 몰두한 일연 스님은 여러 사찰에서 수행했고 말년에 인각사에서 5년간 머물다 입적 했습니다. 한국 인문학의 기틀이 된 《삼국유사》는 인흥사에서 시작해 운문사에서 본격적으로 집필하고 인각사에서 마무리 한 역작입니다. 이 기행에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구구절절 드러내는 것은 지나치게 새삼스러울 것입니다.

일연 스님의 부도가 서 있는 인각사 마당에 서면 스산한 느낌이 듭니다. 이미 겨울이 깊었고 극락전 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마당에 깔린 자갈 밟는 소리가 귀를 거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보각국사정조탑(普覺國尊靜照之塔, 보물 제428호)’은 자연석을 담고 서 있습니다. 팔각의 하대석과 다소 원형으로 옮겨가는 중대석 그리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대석의 가려진 음각의 연꽃문양이 단출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연 스님의 명성에 비해 의외로 장엄하지 않은 부도 앞에서 탑의 조성 시기가 국난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때였음을 절감합니다.

비각 안의 탑비는 거의 파괴되어 글씨는 알아볼 수 없고 몸돌 조각만 일부 서 있습니다. 탑비가 파괴된 것은 몸돌의 서체가 왕희지체를 집자해 새긴 것이어서 글씨에 관심 있는 권력자들이 너도나도 탁본을 뜨고 관리를 하지 않은데다가 임진왜란의 병화가



보각국존정조탑과 석불좌의 모습. 탑비에는 내우외환의 시기를 살던 일연 스님의 입적 상황이 물 흐르듯 새겨져 있다.

5년 머물며 ‘삼국유사’ 완성 후 입적 왕희지체로 새긴 탑비 훼손 근래 복원 교학에 밝으면서 생사 자재하던 선승 여러 이적 가운데 일부 비문 소개

지 입은 탓입니다.
“다시 돌아 와 한 바탕 놀자” 약속하고 입적한 스승의 유체와 유적이 세월의 풍상에 그렇게 시달리는 동안 인각사 역시 쇠락의 길을 걷다가 근래에 불사를 시작했으니 시절연인이 많고 차가움을 느낄 뿐입니다. 다행히 탑비의 탁본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 전해지고 그것을 총괄하여 비문을 복원하고자 애쓴 학자들이 있어 거의 완역에 가까운 비문을 새긴 비석을 2006년 일연 스님 탄생 800주년을 맞아 새로 세웠으니 그나마 위안입니다.

일연 스님의 탑비는 고려 충렬왕 당시의 문장가 민지(閔漬; 1248~1326)가 지었습니다.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하여 새긴 사람은 일연 스님의 제자 죽허(竹虛) 스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충렬왕은 재위 9년이 되는 해에 군신들에게 “나의 선왕들은 모두 석문(釋門); 불교 승단) 중에 덕이 높은 스님을 왕사로 모시고, 또 더 큰 스님은 국사로 추대하였거늘, 부덕한 과인만이 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지금 운문화

상(운문사 주지인 일연 스님)은 도가 높고 덕이 커서 모든 국민이 숭앙하거늘 어찌 과인이 스님의 자택(慈澤)을 크게 입었음이라! 마땅히 모든 국민과 함께 존송하리라” 하고 스님을 나라의 스승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일연 스님은 처음에는 사양 했으나 임금의 뜻이 간절하여 허락 했는데 청호를 국존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국존’이라 칭한 배경은 ‘국사를 고쳐 국존이라 한 것은 대조(大朝 원나라를 가리킴)의 제도인 국사란 칭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비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짓밟고 국가적 스승의 호칭도 바뀌어 가는 시대의 아픔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민지는 비문의 말미에 일연 스님과 관련한 몇 가지 이적(異跡)들을 열거하고 더 많은 이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미신으로 여길까봐 적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 보여 준다면 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일화 몇 토막이 비석 뒷면의 음기(陰記)에 들어있습니다. 산립(山立)이라는 스님이 지은 이 음기 역시 여러 탁본들을 종합해 전체 해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눈길 끄는 이야기 하나를 읽습니다.

“국존의 행장을 살펴보니 그가 임종할 때 대중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다. 기(氣)도 다 끊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 선원(禪源) 정(頂) 스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 실성해 울부짖으면서 ‘항방 중에 탐을 세울 장소를 여쭙 볼 겨를이 없이 입적하셨으니 후회 막람’이라며 대중들과 함께 탄식을 했다. 이때 스님

께서 적정삼매로부터 조용히 깨어나 대중을 돌아보고 이르되 ‘여기서 동남쪽으로 5리(2Km)를 가면 숲이 있는데 지형의 기상이 청룡과 백호 등이 제대로 짜이고 안온한 곳이 있으니, 마치 고총(古塚)과 같다. 거기가 길상지인 명당이니 탐을 세우기 적합하다’ 하시고 다시 눈을 감았다.”

조금 황당한 감이 없지 않으나 생사에 무애자재했던 일연 스님의 일면목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습니다. 산립 스님은 일연 스님 제자들의 청에 의해 음기를 지었습니다. 비의 뒷면에 굳이 음기를 써서 새긴 이유는 일연 스님의 생애 가운데 비문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문도들의 면면을 후세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탑과 탑비가 서 있는 절 마당 후미에 ‘일연스님 생애관’이 낮은 단층 건물로 지어져 인각사 출도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온기 풀린 빛으로 산마들의 한산한 절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해마다 일연 스님의 정신을 되살리고 《삼국유사》를 비롯한 저작(著作)들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때마다 일연 스님은 어느 한 관람객의 모습으로 인각사 마당에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왔으니 한바탕 놀아 보자!”
하면서 말합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고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을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상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도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외나무 진액 참외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외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외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꽃에도 공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호 주산지를 찾아 해마다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외를 만들었습니다.

▶꽃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외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